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9. 1. 20 ~ 2019. 2. 2 제197호



▶ 파키스탄 백파이프 밴드

제공: WMM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파키스탄 거리에서 백파이프 밴드를 만났다. 백파이프는 매우 독특한 악기다. 음색도 그러하지만 기능면에서도 특별하다. 백파이프는 멜로디만 연주할 수 있는 다른 목관악기와는 다르게 스스로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건 백파이프만이 가지고 있는 바람주머니 때문이다.

백파이프는 입으로 연결되는 관을 통해 주머니 안에 공기를 들어

보내고, 주머니를 겨드랑이로 눌러서 멜로디를 연주하는 선율관과 주머니에 달려있는 드론관에 공기를 밀어내어 음을 낸다. 특히 연주자 어깨에 걸쳐져있는 긴 드론관은 연속 저음을 내기에 화음을 낼 수 있다. 바람주머니는 멜로디와는 상관없지만 음을 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스스로 소리를 내진 않지만 다른 기관들이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다. 자신은 드러나지 않

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지체가 영광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명의 특성처럼. 한마디로 “나 잡아먹고 너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에베소서 5:2) [GNPNEWS]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中 종교단속, 탈북민 구호 활동 위축

탈북민 사역 핵심역할 했던 한국 선교사들 추방

중국 정부의 종교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을 돕는 선교사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데일리NK가 9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지난해 2월 종교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여러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며, 허가된 교회부터 비인가 지하교회까지 모두 들이닥치면서 탈북자를 보호하던 선교사들의 활동도 움츠러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한국으로 입국 시키는 데 핵심역할을 해왔던 한국인 선교사와 중국 현지 종교단체들이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탈북민 구호활동이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에서 탈북민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한 선교사는 “지난해 9월 단동의 한 교회가 폐쇄됐고 동료 선교사들도 바로 추방을 당했다”며 “그들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즐지에 지낼 곳을 잃게 됐으며 이들을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 선교단체 관계자는 “최근 활동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인도적 구호 활동은 종교를 떠나서 오히려 당국이 협조해줘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GNPNEWS]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누가복음 10:33~34,36b)

기도 | 하나님, 종교탄압으로 탈북민들을 돕는 선교 활동이 위축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더욱 일어나 강도 만난 자인 탈북민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오히려 박해하는 이들에게 비추져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72)

교회에 꼭 가야 하나요?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되나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거쳐 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네요. 저는 낮가림도 심하고, 또 사람들과 뭘 같이 한다는 것이 꺼려져요” 당신이 어떤 성향을 지닌 분인지 조금은 이해될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어색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하겠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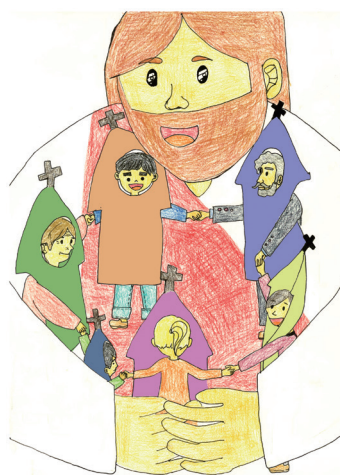
니다. “꼭 결혼해야 하나요? 사랑만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좋지만 결혼은 당연히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관계가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요? 결혼이 가져다주는 유익과 행복은 그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들을 불식시키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통해 한 사람의 인격으로 바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연합입니다. 가족은 어떤 의무 때문에 안부를 묻고 연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교회는 구원받음으로 한 가족이 된 구성원의 자연스러운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 당신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당신의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증거를 나와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형제자매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



일러스트=김경선

버지의 뜻입니다.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한국 2018년 파송 선교사 2만 7993명, 고령화 뚜렷 2면

특별기획 | 터키에서 만난 그리스도인

“지금 터키는 100년 전 한국 같은 부흥이 일고 있어요” 3면

인터뷰 | 김동진 목사

“청소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외치자 변화가 시작됐다”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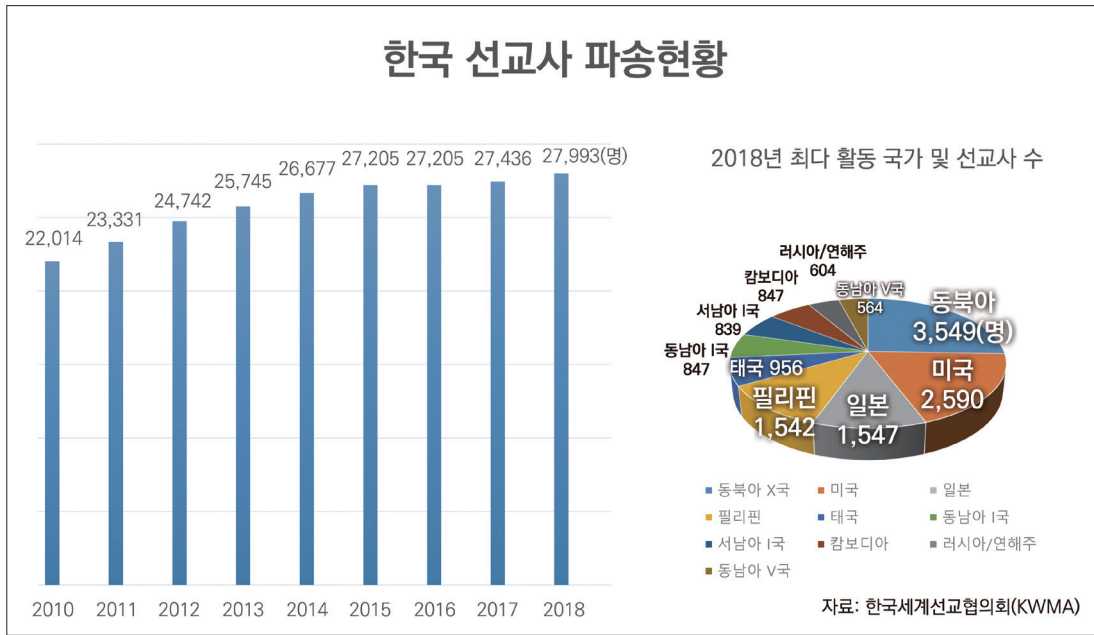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안 될 것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2018년 파송 선교사 2만 7993명, 고령화 뚜렷



선교사의 54.2% 월 선교비 2~4천 달러 수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수가 전년 대비 557명 늘어난 2만 799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경제난과 교회 성장이 정체 상태임에도 파송 선교사수가 다소 늘어나 누적 선교사 파송 숫자로는 역대최고를 기록했지만, 선교사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다고 7일 발표했다.

고령 선교사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60대 이상 선교사는 2709명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50대(5332명)까지 더하면 전체의 28.7%에 달한다. 20대는 448명으

로 1.6%에 그쳤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된 지역은 동북아시아였다.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5916명의 선교사가 파송됐다. 전체 파송 선교사의 21.1%를 차지한다. 이 지역 선교사들은 전년(6319명)보다 403명 줄어 들었다. 최근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KWMA는 분석했다.

또 한국선교연구원(KRIM)은 한국 선교사의 재정 현황 조사 결과, 선교사의 54.2%가 월 선교비로 미화 2~4천 달러(약 220~450만 원)의 후원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최

근 발표했다. 최근 유효 응답자 273명의 선교사의 통계 분석 결과, 응답자의 43.2%는 월 2천 달러 미만, 4천 달러 이상은 응답자의 2.6%인 7명에 불과했다.

한편 14.0%는 지난 3년간 선교비가 20% 이상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79.4%는 재정을 이유로 사역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KRIM의 이같은 연구 결과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선교학술지 IBMR(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2019년 4월에 게재된다. [GNPNEWS]

한국교회언론연, 국가인권위 기독 사학정체성 무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자성애와 같은 주제를 다룬 강연을 금하고 동성애 영화상영을 불허한 기독교대학들에 대해 각각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연합회(이하 한교연)가 이는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7일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의 미인가 행사를 불허하고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한동대에 대해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을 권고했다. 또 송실대에 대해서는 인권

영화제에 성소수자 주제 영화 대관 신청은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교연은 한동대에서 강의를 하기로 한 이들의 2017년 12월의 강의내용을 볼 때, 동성애는 물론 난교와 성의 상품화 등 인간 삶의 존엄성과 성의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런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한 학교 측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국가인권위가 마치 막장드라마 대본 작가라도 된듯한 착각에서 벗어나 잘못된 결정을

즉각 수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동대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반대하며 조만간 대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GNPNEWS]



복음과기도미디어, 제4기 미디어선교사 모집

본지를 발행하는 복음과기도미디어가 문서와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선교사학교 제4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3월부터 1년간 합숙으로 진행될 이번 학교는 미디어 영역의 전반

적 이해와 실습, 마지막 시대에 소망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는 훈련과정으로 진행된다.

복음학교를 수료한 자로 미디어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2월 23일까지. 문의 ☎ 070-7417-0408~10, 010-6326-4641, 이메일 gnmedia@gnmedia.org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1~1.12)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세계식량계획, 팔레스타인 지원 축소... 19만 명 영향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자금 부족으로 1월부터 팔레스타인 빈민 약 19만 명에 대한 지원을 삭감한다. WFP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주민 2만 7천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16만 5천 명의 1인당 지원금을 20% 줄일 계획이다.

하나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식량을 조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에 내몰린 팔레스타인 빈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깨어나 영원한 양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강청합니다.

독일, 1월 1일부터 '제3의 성' 법적 인정

독일에서 유럽연합 최초로 1월 1일부터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독일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팔, 태국 등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몸부림을 봅니다. 악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치는 주님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몸 된 교회들을 통해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 23%는 어린 소녀들

세계 인신매매 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여성이었으며 23%는 어린 소녀들이었다고 나타났다.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이 2018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인신매매의 가장 큰 목적은 성(性)적 유린으로, 59%가 이 때문에 희생됐다.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탐욕의 연단된 마음을 가진 이들의 결국은 저주받임을 알게 하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고통당하는 여성들과 소녀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사 우리의 수치를 씻으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네덜란드 기독교 지도자들, 동성애 반대 '내슈빌 선언문'에 서명

2500여 명의 네덜란드 기독교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지난 1월 5일 전통적인 기독교 성윤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슈빌 선언문'에 서명해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는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주님, 이성애적 결혼 외의 어떤 성관계도 죄이며 동성애나 트랜스 젠더리즘을 용인하는 것도 죄라고 천명하는 내슈빌 선언문에 동참한 네덜란드 교회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 선포하는 진리 앞에 네덜란드의 영혼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1월 21일 ~ 2월 2일
- 1월 21일~1월 26일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 2, 1.21~25(0~24시) ▶ 광주 서구 / 십자가복음교회(김**)010-9883-2347, 1.21(07시)-25(23시) ▶ 강원 강릉 / 은강교회(박**)010-7439-7020, 1.21(10~22시) ▶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1.21~26(10~12시) ▶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1.21, 23~26(10~12시) ▶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22~25(10~12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1.22(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24~26(09~15시) ▶ 강원 춘천 / 샘물교회(이**)010-8856-7726, 1.25~26(10~22시) ▶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1.25(10시)~26(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황**)010-7766-3100, 그 외 11교회 진행 중.
 - 1월 28일~2월 2일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윤**)010-4916-1263, 1.27(12시)~1.28(24시) ▶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임**)010-2276-8221, 1.28~29(0~24시) ▶ 인천 서구 / 사랑교회(엄**)010-5657-9191, 1.28~1.30(0~24시) ▶ 대전 대덕 / 신탄진갈보리교회(구**)010-5402-9504, 1.28~2.2(07~24시) ▶ 세종 고운 / 세종풍성한교회(황**)010-8144-8492, 1.30(06시)~1.31(06시) ▶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1.31(11~13시) ▶ 인천 연수 /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이**)010-4200-5237, 1.31(19:30~21시), 2.1(20~22시) ▶ 경기 고양 / 그루터기교회(신**)010-4944-3735, 1.31(20~24시) ▶ 부산 금정 / 모리아선교회(김**)010-6382-1442, 1.31(22~24시) ▶ 서울 서초 / 마하나임침례교회(신**)010-4750-6347, 2.1(20~24시) ▶ 광주 동구 / 삶이배인교회(진**)010-3305-3541, 2.2(06~12시) ▶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강**)010-3751-0493, 그 외 13교회 진행 중.

특별 기획 | 터키에서 만난 그리스도인(2)

“지금 터키는 100년 전 한국 같은 부흥이 일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중순 화요일. 해발 1000m 위에 세워진 도시 앙카라의 하늘이 유독 맑게 느껴지던 날, 한 대학을 찾았다. 주일날 현지 교회에서 만난 중미 카리브연안국 세인트 빈센트 출신의 유학생 사일러 형제를 통해 들은 대학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터키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 로이 세린켄 형제

도착 시간은 저녁 식사 무렵. 대학 구내식당은 식당 밖까지 몇십여m 줄이 늘어선 등 인산인해를 이뤘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이곳에서 2텔레(약 400원)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에 나가면 최소 15텔레(약 3000원)를 줘야 먹을 수 있는 가격에 비하면 주머니 사정이 편한 대학생들에게 구내식당에서 한 끼 식사는 '은혜' 그 자체다.

대학 구내에서 성경공부 모임 열려

본격적인 성경공부 모임은 저녁 식사 이후 식당 테이블에서 이뤄졌다. 이미 여러 곳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스터디 그룹을 진행하고 있어, 이 모임이라고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았다.

이날은 4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각자 짧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본 뒤,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주인의 아들을 죽인 포도원 농부를 소재로 한 예수님의 비유를 본문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적용 등 주제 토의가 흥미로웠다. 참여 학생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을 피력했다. 모임 때마다 인도자가 바뀌는데 오늘 좌장은 로이 세린켄 형제. 대학 1학년치고는 성경 이해의 폭이 넓어 보였다. 어떤 청년일까? 몇 가지를 질문했다.

- 오늘 모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나?
“이미 시중에 나온 자료를 포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 성경 본문에 대한 신학지식은 물론 다양한 관점을 갖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나?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성경공부 시간에 형제의 목에 언뜻언뜻 내비치는 작은 금빛 십자가 목걸이가 눈길을 끌었다.

-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나?
“아무런 문제 없다. 오히려 목걸이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됐는가?
“터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유로운 서방국가에서 생활하는 것과 아주 다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곧 핍박을 의미한다. 터키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담담하게 말하는 청년이 듣직해 보였다. 아들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졌다. 헤어진 뒤, 로이 형제에게 부모님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만남은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한다. 늦은 밤 답장이 왔다. 내일 만날 수 있다고. 예정에 없던 인터뷰 일정이 잡혔다. 마음의 소망을 품으니 주님이 걸음을 옮겨주신다. 다음날 점심 무렵, 앙카라에 있는 유일한 한국 식당으로 향했다.

전날 밤, 로이 형제의 설명대로 아버지 이스마일 목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봤다. 유튜브를 통해 주일예배를 포함, 다양한 메시지를 터키어와 영어로 볼 수 있었다. 설

교 중 그는 앙카라에서 대학 재학 시절 젊은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처음 듣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인 통해 전도 받은 이스마일 목사

다음 날 이스마일 목사와 부인 앙겔라 사모와 첫 만남인데도 이미 구면인듯 반가웠다.

아주 믿음 좋고 듣직한 아들을 두셨다고 덕담으로 인사를 건넸다. 아들 로이 형제에 관한 얘기로 우리의 대화는 시작됐다. 17살에 고등학교에 월반한 이야기며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해 주변의 칭찬을 듣고 있다고 했다. 똑똑한 사람을 존경하는 터키의 문화에서 로이 형제의 영민함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용하다고 했다. 본격적으로 이스마일 목사가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을 질문했다.

“20년 전 당시 앙카라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김요셉 교수(현재 터키 전문가로 유명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중동연구원)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다. 당시 라오디게아에 있는 집을 떠나 앙카라에 유학중일 때, 교수님이 집으로 초대도 하고 가족처럼 대해줬다. 이분의 친절함과 따뜻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했다. 그러다 그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 한국어 배워려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처음엔 일본어를 배우려고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한국어를 택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지나고 보니 교수님을 통해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 터키는 96%의 국민이 무슬림인 이슬람사회로 알고 있다.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은 없나?
“현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관용을 베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터키가 다른 이슬람 국가와 보이는 차이점이다. 감사하게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경찰 40~50명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요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도 큰 어려움은 없다”

20여 년 전에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체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이스마일 목사는 말한다.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매체로 사람들과 접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 그는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해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구베르니아 천국이라는 소설을 단행본으로도 출간한데 이어 올해 영화로도 제작돼 시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건이 달라진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2007년에 말라티아 사건이 있었다. 그때 터키의 젊은 무슬림 청년들에게 세 명의 그리스도인이 무참하게 살해됐다. 그 사건 이후,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지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특히 순교한 틸만 선교사 부인이 사건 직후 TV인터뷰에서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말했는데, 당시 터키인들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

을 남겼다”
터키 말라티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20대 안팎의 청년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던 독일 선교사와 터키 그리스도인을 의자에 묶어놓고 흥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기독교인 핍박사건이다. 이 일로 독일 출신의 틸만 선교사 미망인은 TV 인터뷰를 통해 “그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우리 남편과 동역자를 죽였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한다”고 담담하게 말해, 터키인을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증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스마일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듯이, 그들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터키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한 은혜의 통로였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 복음화라는 관점에서 터키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은 현재 터키 땅에 놀라운 일을 허락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궁금해하고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있다. 100년 전 한국에 있었던 부흥의 순간이 지금 터키에 오고 있다고 믿는다. 믿는 자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낳으면 일리아스, 호프, 라파, 시오나,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과거에는 무슬림이 싫어하는 이런 이름을 아이들에게 붙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 언제 교회를 개척했나?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던 아버지가 10년 전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무렵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다. 기회를 보다가 2009년 12월 24일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때가 첫 모임이었다. 마지막 때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진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도중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다. 그때 주님이 이 땅은 내 땅이라고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해주셨으며, 그 모임을 계기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때부터 앙카라에서 매주 500km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 방문해 교회를 섬겼다.”

이를 계기로 교회가 유명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기독교를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 시위도 하고 교인들을 쫓아내려고 했다. 경찰들도 수십 명이 왔다. 이런 풍경이 당시 미국 뉴스 채널 CNN에서 보도가 되어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지금은 안디옥과 앙카라 등 3곳의 교회에서 각각 수십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풍경이 당시 미국 뉴스 채널 CNN에서 보도가 되어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지금은 안디옥과 앙카라 등 3곳의 교회에서 각각 수십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 이스마일 목사와 앙겔라 사모

- 기도제목은 나눠달라.
“과격단체들이 우리 교회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교회 건물에 총을 쏘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유리창과 전등이 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지켜주셔서 아직은 생명이 지장이 없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기도해주시면 좋겠다”

루마니아 출신인 부인 앙겔라 세린켄은 18세에 선교사로 헌신해 터키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중 이스마일 목사를 만나 결혼, 현재 슬하에 2남 1녀의 자녀와 함께 주일예배에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계속> [GNPNEWS]

앙카라(터키)=C.K.



▶ 대학 구내에서 성경공부를 갖은 학생들과 함께 했다.

기획 | 창조 이야기(8)

“현재 인구 수는 인류 역사가 4400년 정도임을 말해준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1999년에 세계 인구는 60억을 돌파했다. 1984년에는 50억이, 1800년에는 10억의 인구가 지구에 있었다. 이런 사실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져 세상이 너무 복잡한 것은 아니다. 인구과잉이 아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계 인구는 약 2억 50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 곡선 자체가 약 4400년 전에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만일 당신이 진화론을 믿는다면 문제가 생긴다. 사람이 300만 년 동안 존재했고, 300만 년 동안 인구가 이 속도로 증가했다면 지금쯤 평방 인치당(약 6.5cm²:역자주) 약 15만 명 정도가 존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수백만 년 동안 산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사 45:18)라고 하셨다. 우리가 지구의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사탄의 계획일 뿐이다. ‘우리는 하루에 35만 명을 제거해야 하고 지금보다 95%의 인구가 감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세계 인구를 5억으로 감소시키고 싶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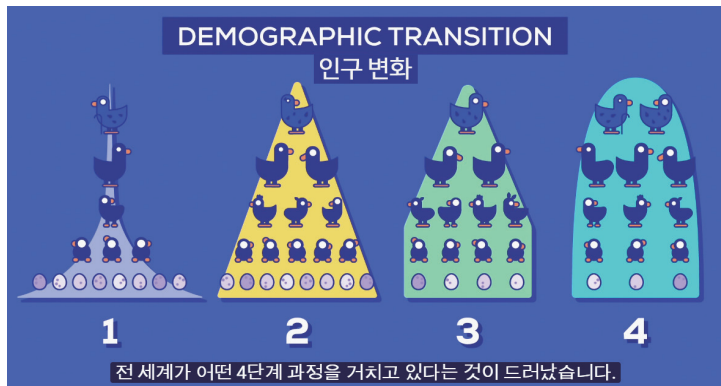
땅에 충만하라 vs 인구를 줄여라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창 3:14)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창 3:15) 사탄은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알았고 그것이 달갑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결정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죽이는 것이다.

‘지구를 채워라. 아이를 많이 낳아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탄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0으로 줄일 거다’라고 한다.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모든 아이들을 죽여라” 사탄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

어떤 이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중 얼마는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세계 인구를 10억 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생물학적 다양성 조약’에 서명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의 생명윤리학과 피터 싱어교수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낙태시켜도 된다고 주장했다. 28일 동안에 아기를 살려둘지 결정할 수 있게 하자면서 “기독교는 우리의 적이다. 동물권이 성공하려면 우리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을 파괴해야 한다”고 외쳤다. 마치 동물이 사람보다 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인 필립스 왕자는 “내가 만일 환생할 수 있다면 세계인구 감소를 위해 유해 바이러스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뉴 아메리카’ 잡지의 ‘공학설계 된 멸종’은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의 씨앗, 음식에 어떤 장난을 쳤



▶ 많은 과학자들은 ‘인구성장모델’이 전 세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1단계, 나쁜 환경으로 인한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 2단계, 산업혁명으로 생활 조건이 개선되어 이로 인해 나타나는 낮은 사망률과 폭발하는 인구 성장률. 3단계,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로 폭발적이었던 인구 성장의 정체. 4단계, 출산율 하락과 인구 증가 폭의 둔화 심화. 그러나 출산율 감소에 대해서는 낙태와 선택적 출산 등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의 출생이 환경여건에 달려 있을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다(출처: 유튜브 영상캡처)

는지 말해 준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 외곽의 앨버튼 타운에 가보면 지구의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면 허허벌판에 돌을 원형으로 배치한 고대 유적인 스톤헨지 같은 것이 서 있다. 12개의 언어로 ‘신세계 질서의 10계명’이 쓰여 있다. 제 1계명은 ‘인구를 5억 미만으로 유지하라’이다. 그러나 인구를 줄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현

재 인구 수는 인류가 지구에 존재한지 4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약 2000년 전에 전체 인구가 2000~3000명으로 감소한 유전적 병목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과 근접하다. 4400년 전, 노아시대에 일어난 홍수로 인류는 8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계속 연구하다보면 성경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카자크어 성경 완역 이후 오디오 성경 제작

1만 8000여 마을에서 말씀과 기도 일어날 것 기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유라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나라이다. 130개 종족, 인구 1800만 명의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크인의 비율은 전체의 65%에 이르는 약 1000만 명이다. 1991년 독립과 함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많은 전도 열매들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사역이 주로 다민족, 특별히 고려인과 러시아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종족인 카자크족에 대한 복음화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현재 카자크인 그리스도인은 0.02% 추산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큰 부흥을 경험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시기에 기적과 이적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영접한 간증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정체와 하락세를 보이며, 지금은 새로운 종교법과 거센 세속주의의 도전 속에 힘을 잃고 있다. 새로운 종교법은 부모 동의 없이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전도를 금지하

고 있으며, 카자크인을 제외한 성인 50명 이상이 되어야 교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2000년 초반에 1000여 개의 등록 교회와 단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종교법을 따라 정부에 등록된 교회는 350여 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대부분의 모임은 가정모임의 소그룹으로 모양이 바뀌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주저앉아 있다. 그중에는 많은 카자크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화하고 있다.

주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카자크어 오디오 성경 제작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주님은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고, 또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는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이다. 이 말씀



▶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카자크어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카자크 족(출처: totalgiving.co.uk 캡처)

과 기도가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카자크인들을 흔들어 깨울 것이다. 카자크어 성경은 2002년에 신약이 번역되었고, 2010년 신구약이 완역됐다. 성경 번역과 함께 오디오 성경도 만들어졌지만, 신구약 전체를 완역하기 전에 오디오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전체 성경이 들어가지 못하고 구약은 약 1/3만 제작된 불완전한 오디오 성경으로 남아 있

다. 또한 기존의 오디오 성경은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고, 또 너무 느리게 읽어서 카자크인 그리스도인들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전체 성경이 들어간 오디오 성경을 다시 만들기로 하고 몇몇 사역자들이 이 일을 시작했다. 단 한 명의 전문가도 없이 용감하게 뛰어 들었다. 스튜디오를 섭외하고, 성우들을 만나 비전을 공유하

고, 저작권 문제들을 해결하고, 녹음 작업을 진행할 때까지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을 할 수가 없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 주셨다. 지금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 가며 녹음 작업이 계속 되고 있다.

이 녹음 작업을 하기 전 한 기도 그룹에서는 카자흐스탄 전체 1만 8000여 개의 모든 마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처소가 생기기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셨다. 초기 한국 교회 부흥의 산파역을 감당했던 권서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함께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도 카자크어로 된 성경과 오디오 성경을 1만 8000여 마을마다, 1000여 개의 캠퍼스로 가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잠든 카자크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땅을 가득 덮고 있는 어둠은 달아나며 생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날이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GNPNEWS]

K국=누르잔 통신원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청소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외치자 변화가 시작됐다”

의정부 열방교회를 찾았다. 로비에 들어서자 김동진 목사는 카페에 비치된 청소년부의 활동을 담은 신문을 보여주었다. 의정부 열방교회는 교회의 이름만큼이나 해외 선교파송과 각종 단기 선교, 전도여행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열방을 위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24·365를 파수하고 있고, 요즘은 느헤미야52기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선교하는 의정부 열방교회의 청소년부를 맡은 김목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의정부 열방교회 청소년부가 최근 수련회와 전도여행, 복음캠프는 물론이고 쿼어축제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이런 모습으로 자리잡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쿼어축제 반대 집회에도 4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 매년 참여합니다. 처음 갔을 때는 어색했죠. 아이들이 그곳에서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거기 또래 아이들도 많아서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울면서 기도 하더군요. 반대를 외치기보다 지하철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찬양을 불러요. 지나가면서 손가락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뭘 던지는 사람도 있는데, 용기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자들도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아직 교회적으로 공격받는 일은 없지만 기도하게 되더군요.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작년 여름에 순회선교단과 연합해서 청소년부 복음캠프를 진행했어요. 그 전부터 매년 여름마다 전도여행도 진행해왔죠”

- 청소년부가 상당히 활발하네요, 이 교회에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2006년도에 부임해서 올해로 14년 됐어요. 전도사로 부임해 이곳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부목사까지 됐어요. 제게는 정말 의미 있는 교회예요.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처음 사역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허락해주셨어요. 당시 나이 어린 저를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으셨을텐데, 은혜로 교회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4년 동안 유년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정말 좋았지만, 마음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을 때처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으로 사역을 해 볼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에 남게 되면서 청소년 사역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때부터 9년 동안 고등부를 담당하다 이후로는 중고등부를 합친 청소년부를 담당했어요”

9년간 청소년부를 섬기며

- 오랫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섬기셨군요.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학생 시절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곳이 한 선교단체의 예배모임이었어요. 그때 청소년에 대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사역의 비전과 잘 맞았어요.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선교단체의 방식으로 사역이 진행됐어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름과 겨울마다 전도여행도 다녀왔어요. 처음 전도여행에는 다섯 명의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동의를 안 되니까 전도여행 가자고 해도 아무도 따라나서지 않았고 겨우 다섯 명만이 함께하게 된 거죠. 전도여행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입소문이 나 두 번째 해는 열다섯 명 정도가 갔고, 그 다음연도에는 두 팀으로 갔어요. 그렇게 매년 여름 겨울에 전도여행이 활성화되었어요. 수련회 후, 전도여행 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 전도여행으로 기억나는 은혜가 있으신가요?

“처음 함께했던 아이들이 기억에 남아요. 밤 10시에 태백에 도착했어요. 시골엔 밤에 아무도 없잖아요. 도착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아이에게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저쪽에서 검은 승용차가 오는 거예요. 와서 창문을 내리더니 아이스크림 7개를 내밀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김동진 목사(의정부열방교회)

받고 저희가 너무 기뻐했죠. 다섯 명 아이와 저까지 해서 여섯 명이 있었는데 사실, 한 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못 갔거든요. 하나님이 아이까지 챙겨주신 거죠. 매년 전도여행 다니면, 이렇게 한두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어요. 물론 어떤 아이는 핸드폰만 하는 아이도 있고 역지로 참여하는 아이도 있지만, 같이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자녀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우죠”

전도여행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경험하며

-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시간이 되었겠네요.

“네.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또 청년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군대 갔다 오면 돌아오지 않고 믿음도 다 까먹었죠. 하나님은 알지만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추억일 뿐, 이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가 되지 않는 거죠. 설교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고 소망을 외치고 희망을 외쳤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 제가 졸업시킨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 중 지금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자기의 삶에 문

혀 살고 제각각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 어떤 딜레마였죠?

“그게 2016년 가을이었어요. 여름까지 수련회를 전도여행으로 대체하면서까지 풍성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 속에 또 주님을 등지고 떠나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니 왜 이런 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지 절망하게 됐죠. 제가 해보지 않은 사역이 거의 없었거든요. 많은 것을 시도해봤는데 안 된다. 뭐가 문제인가. 삶의 예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탁아소에 오는 어린아이들 같았어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기는 하는데 자발적인 예배가 아니니까 그냥 졸다 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예배를 바꿔야겠다고 결심하게 됐고, 아이들이 팔팔하게 깨어있는 그 시간을 찾아서 저녁 6시로 예배 시간을 옮기고 싶다고 교회에 요청했어요. 걱정과 우려의 소리로 컸지만, 중학교 아이들까지 통합하는 변화를 교회에 요청했죠.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6년의 시간을 저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주셨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새로운 아이들로 바꾸자 해서 ‘뉴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사역을 야심차게 시작했고 큰 변화를 거치게 됐어요”

- 결단하시고 실행하시는 목사님

에게도 용기가 필요하셨어요.

“2017년 3월에 예배를 바꾸면서 매우 큰 진통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을 바꾸고 부서의 틀을 바꾸는 상황에서 사실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럼에도 팀을 이루고 예배를 바꿨어요. 예배를 바꾸고 나면 잘될 줄 알았죠(웃음). 열심히 준비해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마른 통나무들이 앉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고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잠만 안 잘 뿐이지 오전이나 저녁이나 앞만 멍하니 쳐다보는 똑같은 태도인 거예요. 나중에 일주년 되고 나서 아이들에게 처음 예배드릴 때를 물어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아이들은 자신들이 왜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하는지 자기들도 잘 모르는 상태로 앉아만 있던 거예요. 두 달이 넘도록 예배가 똑같았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부모님도 아직 마음이 편치 않고, 교회에서도 승인은 해줬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고, 저 자신도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계속 저를 짓눌렀어요.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결론은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문 닫는 거였어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복음학교를 가게됐어요”

예배를 바꾸면서 큰 진통

- 절망하던 때 가셨던 훈련이라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네요.

“2017년 여름이었어요. 총체적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앞에서 저의 존재적 죄인의 실상을 보게 되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사실 훈련이 시작될 때는 강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써먹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사역에 목숨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이것도 어떤 돌파구로 만들어볼까 하면서 강의 내용을 예화까지 빠짐없이 적었어요. 7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복음학교 강의 내용을 책으로 출판 됐더군요. 강의를 모두 적고 펜을 놓았는데, 이게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외쳤던 게 뭐였나? 되돌아보니 복음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한 것, 아이들에게 너를 위한 것을 얘기했던 거였죠. 결국 나를 위한 바베폰을 쌓았나 싶더군요. 그런 난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하며 심경가운데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확증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청소년에 대한 마음을 다시 주셨어요” [GNPNEWS]

<인터넷 신문에서 계속>

H.M.



▶ 작년 여름 열린 청소년 복음캠프(좌)와 지하철역 앞에서 피켓을 들고 동성애 반대 시위하는 청소년부의 모습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5)

“안 될 것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다”(시 108:13) 겁먹고, 살 궁리하고 돌아다니던 우리의 삶은 이제 끝나야 한다. 주님 손 안에 있는 상황이라면 가다가 곧 죽을지라도 당당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자!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용기 있는 사람은 비록 불가능해 보인다. 비록 수많은 감정이 흔들려대지만,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당당히 외칠 수 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시다!”

마음을 확정한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주를 의지하여 용감하게 전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어두운 새벽 직전에도 역사의 새벽을 깨운다. 우리는 역사를 깨울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의 키

(key)를 맡기셨다. 주님이 속히 오시게 해야 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이를 위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6~7)

주님의 약속을 붙들자 주님이 하신다!

복음을 가진 우리, 역사의 해답을 가진 교회는 결코 평범하게 살 수 없다. 용감하게 전진해야 한다. ‘래디컬’의 저자이면서 미국 대형교회 역사상 최연소 담임목사가 된 데



일러스트=노주나

이빗 플랫폼이 남수단에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이 말했다.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방법을 물었다. 그랬더니 이번엔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플랫폼이 ‘가능하냐’고 다시 물었다. 그 청년이 확신 있게 대답했다. “안 될 것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 될 것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어둠이 제아무리 길을 막아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를 주셨다. ‘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시 2:8)고 약속하셨다.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며, 순종하지 못할 까닭이 무엇인가? 무엇이 겁나는가? 무슨 계산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자. 주님이 하신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혼자서 못하면 여럿이 하면 된다. 제 2의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안 될 것 없다. 기도해 왔지 않는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선교하면 주님 곧 오신다! 새벽을 깨우자! 단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사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자! (2017년 3월)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히브리어로 만나는 복음 (28)

진정한 기도는 마음을 살피는 것, “카바나트 하레브”(כַּבָּנֹת הָרֵב)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도’(קָבוּץ, 트필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기도하면 ‘구하는 것’(ask, beg)이 떠오른다. ‘기도’(祈禱) 한문으로 하면 ‘빌고 빈다’는 말이다. ‘빌고 빌어서 얻어 내는 것’ 안 주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별 기도를 다해서라도 받아 내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기도개념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빠’(롬 8:15) 이시다. 아람어에서 유래된 ‘아빠’라는 단어의 의미는 특별하다. ‘아빠’(אָבא)는 주시는 자, 주는데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분,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못 주시거나 안 주시면 병이 나시는 분! 이런 의미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상 사랑하는 자녀에게 못 주면 병이 나신다. 때를 써서 ‘달라 달라’ 그것도 좋지 않은 것을,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 몸부림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 히브리어 한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마 7:9~11).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 ‘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도가 아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도란 ‘카바나트 하레브’(כַּבָּנֹת הָרֵב), 즉 ‘마음의 그 의중을 살피는 것이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과연 그것을 구하는 내 꿈공이 속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시 139:23) 이 기도를 히브리어로 보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 중 명 기도이다.

‘구하는 것’, ‘달라 달라’의 속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스울과 아바돈(죽음)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잠 27:20) 구하는 것의 속성은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죽을 줄을 알지 못하여 죽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녘이 있나니 곧 스울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죽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잠 30:15~16) 그칠 줄 모르는 욕망, 더-더-더(more)의 속성을 따라 구하면 ‘스울’(שׂוּל, 음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속성을 알고 단지 ‘구하는 것’에 우리의 몸



과 영혼을 던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서 피해야 한다.

기도 용어인 ‘샤알’(שָׁאַל), 이스라엘 초대 왕 ‘샤울’(שָׁאוּל), 음부(지옥) ‘스울’(שׂוּל)은 사실 다 어원이 같은 말이다. 묻지 않고 ‘샤알’처럼 살아가면 떨어지는 곳은 ‘스울’이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잘못 구해도(샤알) ‘스울’로 간다. ‘샤울’은 마땅히 구했어야(샤알)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구하지 않고(샤알) 자신의 원함대로 행했다. 결국 그는 찢혀지고 말았다.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GNPNEWS]

김명호 교수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소장)

헤브론선교대학교
HEBRON UNIVERSITY FOR MISSIONS

2019
헤브론선교대학교
신입생 모집공고

모집대상

-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 선교적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인정 대상자

추가 입학설명회

- 일시: 2019. 2.11(월) 오후 2시 ~ 오후 5시
- 장소: 인천 항동 요셉의 창고(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4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입학원서(전형료 7만원)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교부
- 원서 접수기간: 추가입학설명회 참석 후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는 2월 25일~3월 2일에 진행되는 복음학교에 참석하여야 함
- 입학식: 2019. 3. 5(화)

문의 및 접수처

- 입학설명회 참가 신청: 이메일 hufm@hanmail.net
- 전화 010-4031-0700, 010-8418-5115
- 주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월평3길 8 (31952)
- 홈페이지 www.hufm.or.kr 참조

HUFM English Good News Camp

제 3기 헤브론선교대학교

영어복음캠프 참가자 모집

2월 11~14 (3박 4일)

대상: 고3~성인(영어권) 접수기간: 1월 1일~21일(21일 우편소인까지)
 원서접수 방법: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 또는 헤브론선교대학교 홈페이지
 www.hufm.or.kr에서 원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
 합격자 발표: 전화면접 이후 헤브론 선교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참가비: 현금으로 운영 문의: ☎ 010-2702-2290, hufmEGNC@gmail.com
 *섬김이 모집 외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다”

10대 청소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 어떤 사고의 변화를 경험할까? 기독교 학교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학습하며 경험한 내면의 변화를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내용 요약문이다. <편집자>

세상에는 인종차별, 종교차별, 신분차별, 학력차별, 성차별 등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한다. 그중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금세기에는 있었던 가장 참혹한 인종차별 사건을 꼽으라면 나는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일어난 르완다 대학살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다.

“친절했던 이웃집 아저씨와 학교 선생님, 목사님이 하루 아침에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죽으라고 계속 달렸어요. 그들이 계속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너를 꼭 죽이고 말겠다고”-르완다 대학살 생존자 인터뷰 중

10대 청소년 71명을 대상으로 차별에 관해 설문조사를 했다. 차별해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75%

가 차별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65%가 차별을 받았으며, 89%가 차별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나랑 맞지 않아서, 외모 때문에, 잘난 척해서, 말투, 성별이 달라서 등이었다. 나는 여러 가지 답변을 검토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가치관이었다.

가치관이란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사회, 문화 속에서 결정된다. 가족, 친구, TV, 컴퓨터, 책 등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기준들이다. ‘아름다움’을 예로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작고, 눈이 크고, 허리는 가늘고, 피부는 밀가루 같이 하얀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가치는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매체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인도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자신

이 가진 가치관에 잘 부응하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착각한다. 만약 당신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조건만을 갖추고 있다면 자신을 가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암묵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므로 차별이 있는 까닭은 이런 가치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더 나은지를 계속 판단하는 잣대가 바로 차별인 것이다.

나는 복음이 가치관을 바꾼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는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민족의 반역자들로 불리는 세리들의 친구였다. 누군가는 오직 믿음으로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는 말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하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것과 다름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갈 용기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러스트=이예원

세상의 모든 가치를 변혁시키시는 분이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고전 1:26-30).

나 역시 차별을 경험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나는 수줍음이 많았고 내성적이어서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했다. 결국 ADHD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고 나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되었다. 열등감의 종이 되어 사랑할 여유가 없었고, 이기심과 자존심이 자주 표출되었다. 내가 너무 부끄러워 솔직하지 못했고, 언제나 위선자 같았다. 진리의 터 위에서 배우고, 공동체로 사는 학교에서도 여전히 그런 습관들이 내 몸에 배어 있음을 종종 보게 되

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도록 돕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 나에게 여전히 병든 가치관의 흔적이 있지만, 계속 싸울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차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차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GNPNEWS]

임경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미 인권전문가 “북한 억류 한국인 6명, 장기 억류에 우려”

이 시대 가장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 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송환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인 6명은 장기 억류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최근 전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북한의 한국인 6명 장기 억류는 외부 세계와의 대화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억류 한국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는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인 억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

렵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던 미국인 3명이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석방된 사실을 지적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풀려났지만 이내 숨진 고(故) 오토 워비어의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약 5억 113만 달러(5643억 원)를 배상하라고 지난해 12월 24일 판결했다.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하월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북한은 워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 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북한은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는 등 재판 및 판결은 북한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장기 억류 해결 위해 한국 정부가 관심 가져야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화해를 위해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한국인들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문제



▶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왼쪽부터)씨의 기자회견 당시 모습(출처: voakorea.com 캡처)

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6명을 구조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갔지만, 한 달 동안 3만 2000여 명이 서명해 청와대의 답변을 듣는 데 필요한 20만 명에 크게 못 미쳤다.

현재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은 모두 6명이다.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북한에 억류된 지 5년이 넘었다. 또한 2014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4년 넘게 북한에 억류돼 있다. 이들 세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은 모두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구금돼 있다. 이밖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이 2016년부터 북한에 억류돼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욱 선교사는 평양 외곽 지역의 구금시설에 감금되어 현재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북한정의연대와 북한인권증진센터는 지난 달 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답방 이전에 북한에 강제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모든 한국인들을 조속히 송환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장기 억류 중인 한국 국적자들을 석방하라고 북한에 요구했다. 북한 지도부가 한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신호를 국제 사회와 한국 정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GNPNEWS]



제자의 권리 의식

복음이 호소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라고 한다. 제자도와 구원은 다르다. 제자는 구속의 의미를 깨닫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권리를 그리스도께 드린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어한다. 바로 그 권리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제자도의 본질은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무조건 맡기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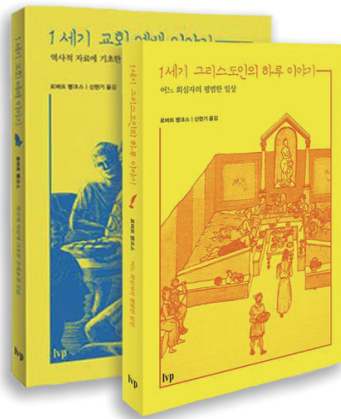
제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음’을 드러낸다. 산 제자가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 제자는 좋은 것도 피하는 특권을 택한다. [GNPNEWS]

<제자도(2012), 오스왈드 챔버스>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로버트 뱅크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이후 달라진 일상의 가치와 기준



로버트 뱅크스 지음 | 신현기 옮김 | IVP | 총 158 쪽 | 2017-2018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내 일상이 주님 앞에서 충분하지 되돌아보게 됐다. 결심하고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자꾸 죄책감으로 마음을 찌르던 중 이 두 권의 책을 발견했다. 초대교회의 경건함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받고자 하는 기대로 뽑아들었다. 무언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을 해결하

고자 했던 내 기대는 와장창 무너지고 나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의 질문들이 내면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빌립보에 사는 이방인 푸블리우스가 로마 방문 중 친구를 따라 새로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한 경험을 나누어 준 것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이다.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가 이미 예배의 시작이라는 개념에 신선함을 느낀다. 여태까지 알아 왔던 다른 신들에 대한 예배와는 달리 이들은 종교적 행위와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 편안한 식사와 교제 속에서도 그 내용과 태도 안에 신을 향한 실제적인 인식과 실천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 시대의 일반적인 관습과 달리 주인과 종,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것 없이 같이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다음 모임에도 오게 될 것 같다

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기독교인이 된 푸블리우스가 새로운 도를 따르며 자신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의 평범한 하루 일과를 소개하는 내용이 두 번째 책인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이다. 믿음이 생긴 후의 변화를 획기적인 간증이 아니라 일상을 이루는 가치와 기준을 통해 보여준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식사와 옷차림, 자녀 양육과 부부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나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됨과 어울림 등의 이슈들을 그의 일상을 통해 다루고 있다. 변화된 존재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생기는 고민들이 담겨있다.

우리의 삶은 성만찬을 기억하는 참된 예배

두 책 모두 삶의 소소한 문제들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명쾌한 답을 주는 책이 아니다. 정말 말하고 싶은 주제

는 하나, 우리의 모든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삶을 기억하는 참된 예배라는 것이다. 1세기의 예배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묻는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삶이 예배라는 익숙한 말이 이 순간도 내게 정말 실재인지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섰다.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예배 시간과 교회 생활에 충성했는지,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은 충분했는지 물으시는 것이 아니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쌀을 씻으며, 늦잠 자는 아이들을 깨우며, 친구와 통화를 하며,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나는 예배하는가. 버스 안에서, 쓰레기장 앞에서, 주차장에서, 마트에서, 병원에서 나는 예배자로 있는가. 하루의 만족은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일했는지, 묵상과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

나님도 나와 같은 기준으로 내 하루를 평가하실까... '주님, 아까 열심히 예배했으니 제발 잠깐만이라도 저 좀 혼자 내버려 두세요. 제게도 사생활이 필요해요'라는 태도로 살았던 나의 많은 시간들이 떠올랐다. 부들부들 떨렸다.

정작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더욱 반응하는 기만을 종교적 열심과 행위에 감추어 만족하고 있던 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듣고, 알고, 동의하나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괴리감을 느끼지 않던 무심한 마음을 두들겨 깨뜨려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는 일,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일은 또 다른 의무나 짐이 아닐 것이다. 한 순간도 사랑하는 주님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간절한 목마름이며,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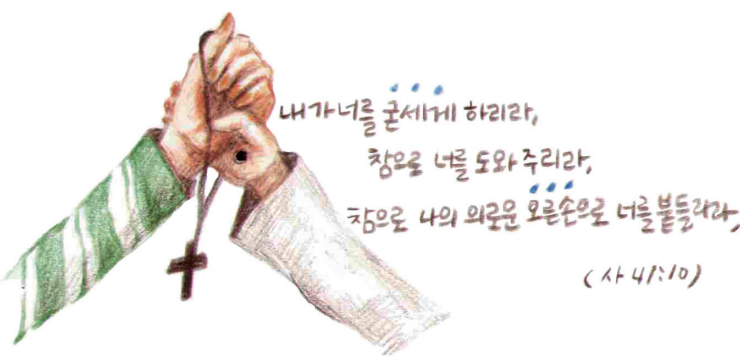
이귀영 선교사

11월 11일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오토바이 사고, 그래도 감사”

“나는 선교사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계속 따지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겠어. 잘할 때만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선교사의 삶이지”

2년의 단기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아직 선교지에서 들어오지 않은 언니가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간적인 마음에 분노만 일어나는 일을 들었습니다. 언니가 오토바이 면허를 딴 날 아는 동생을 집에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초보였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언니의 오토바이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언니도, 함께 타고 있던 동생도 작은 상처 외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속하며 달려온 그 오토바이는 앞이 완전히 부서지고 사람들도 많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건의 책임은 그 과속한 현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인이었던 언니가 불리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고를 났던 현지인들이 친구들을



일러스트=이수진

데리고 와서 모든 잘못을 언니에게 덮어씌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는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언니는 하루 종일 경찰서에 있어야 했습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평소엔 웬만해선 울지 않는 언니가 눈물을 보이며 이야기까지 하니 화가 나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감사한 제목을 찾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고, 죽기 위해 사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억울한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일단 언니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 줄 지체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이 이제 성숙한 선교사로 언니를 쓰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단기선교의 기간 이런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화

부터 나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 저는 늘 그런 상황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이런 것이 나의 존재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크고, 어려워 보여서 불평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다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는 언제나 바로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NPNEWS]

하닷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8. 12. 20 ~ 2019. 1. 10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을수 강중채 고은영 김나리 김남분 김사희 김선희 김성훈 김수미 김애심 김영아 김혜신 노은옥 단현철 박상기 박성규 박숙자 손예린 송일양 안민자 안병윤 안수경 우 석 은중숙 이경형 이남준 이동희 이란영 이삼연 이 순 이은주 이장훈 이정희 이준진 이지영 이진희 이현희 장근혜 정영숙 조경미 조명숙 조상국 조형광 주유순 차정규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문광교회 거자씨선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미중물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산돌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썬 시은교회 시흥교회 양덕원교회 은혜의샘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주안교회 주소망교회 주석회사미션21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기도원 천복장로교회 팔복교회 하원교회 행복한우리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